

뒀다 '중년 스타'

'20~30대 스타 배우 부럽지 않다'
TV 드라마, 시트콤, 영화 등 전 분야에서 중년배우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주인공의 부모 등 조역에 머물지 않고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당히 '원톱'으로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연기 거침없다 니문희



▲TV, 영화계를 접수하다
지난해 말 열린 'KBS 연기대상' 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바로 탤런트 니문희(64)가 아무 상도 수상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니문희는 상반기에 방영됐던 노회경 원작의 '굿바이 솔로'에서 아픔을 안고 싶어증에 걸린 할머니로 열연한 데 이어 최고 인기드라마였던 '소문난 칠공주'에서 '돌리고~돌리고'를 연발하는 철없는 할머니역으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다.
최근에는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야동순재'라는 애칭으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순재와 부부로 출연, 시청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너는 내운명' '열혈남아' 등에서 잇을 수 없는 연기를 보여준 니문희는 최근 크랭크인한 '권순분 여자 납치 사건'에서는 당당히 주인공 역을 맡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또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맥스무비 영화상'에서도 젊은 배우들을 물리치고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뒤늦게 꽃피다 이계인

▲드라마, 오락, CF 점령
최근 방영중인 한 카드 회사의 CF는 남들이 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출연시켰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탤런트 이계인(56)이다.
55세에 첫 팬미팅을 했다는 자막과 함께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현재' 그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
인기절정의 드라마 '주몽'에서 모팜모 역으로 출연중인 이계인은 그 캐릭터를 그래도 살려 제과 CF에도 출연중이다.
또 노주현·태진아 등과 함께 고정 출연중인 KBS 오락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의 '쾌남시대'에서는 '군기반장'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영화 주연맡다 친구



▲연기의 재발견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와 '너희가 게맛을 알아'로 유명한 광고를 통해 네티즌들의 사랑을 차지한 바 있는 친구(70)는 일일드라마 '열아홉 순정'에서 20대 젊은이들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또 최근에는 '방울 토마토'라는 영화에서 주역을 맡아 열연했다.
그밖에 영화 '괴물'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변희봉은 현재 드라마 '하얀거탑'에서 올곧은 오경환 교수 역을 맡아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 김지영·여운계·김용동 등 60대 배우들은 영화 '마파도 2'에 단체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올해 환갑이 된 백윤식은 현재 촬영중인 '성난 팬관'을 비롯,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 미치는 영향' 등 이미 수련의 영화에서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7671호 2판
2007년 2월 3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설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전부 2200-690 02-773-9331
조서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솔 음악 대표주자 박효신 3년만에 5집 출시

“싱어송 라이터 가는 첫 걸음 땀네요”

한국 솔(Soul) 음악의 대표주자 박효신(26)이 약 3년 만에 5집 '더 브리즈 오브 시(The Breeze of Sea) : 더 발라드(The Ballad)'를 출시했다.
"철저히 솔을 베이스로 한 발라드 음반이에요. 그간 속삭여 정한 컨셉의 노래를 불렀죠. 이제야 싱어송 라이터로 가는 첫걸음을 땀네요."
5집은 호느끼는 마이클 볼튼의 무게감보다 감미로운 에리 베넷의 편안함에 가깝다. 솔 가수 특유의 육중함 '소

몰이 창법'은 절제했다. 또 신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가 작곡한 연주곡 '에튀드(Etude)'로 클래식함을 더했다. 타이틀곡 '추억은 사랑을 닮아'를 비롯해 '로스트(Lost)' '그림고 그리운...' '라이크 어 스타(Like a Star)' 등을 황성재와 공동 작곡했고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을 홀로 완성했다.
또 노라 존스의 '돈 노 와이(Don't Know Why)', 리처드 마크스의 '나우 앤 포에버(Now & Forever)' 등 리메이

크곡도 실었다.
"방송 활동하며 많이 활발해졌지만 (내성적인) 본질은 어쩔 수 없네요. 요즘 악플, 악플 하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싫어해요. 특히 작은 일에 상처받고 큰 일에 대변한 '스타일'이어서, 인터넷 문화가 한번쯤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효신은 유나의 씩씩한 빈소를 통해 가요계 인간관계를 질타한 김진표 씨 글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10 BOX OFFICE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황후화	11만 6천200	46만 1천
2	최강로맨스	8만8천100	52만6천
3	미녀는 괴로워	7만8천900	615만7천900
4	미스 포터	6만5천300	18만5천900
5	마파도 2	6만3천	131만8천
6	허브	4만2천500	128만6천300
7	천년여우 여우비	3만8천	18만6천
8	데자뷰	3만7천400	77만2천100
9	로버트 태권 브이	3만6천600	47만2천800
10	블러드 다이아몬드	2만6천600	44만1천300

(단위:명) (자료제공:필름 2.0)

순위	제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46.0
2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4.0
3	누나	MBC 23.5
4	연개소문	SBS 21.8
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21.7
6	거침없이 하이킥	MBC 21.1
7	무한도전	MBC 20.7
8	일요일 일요일 밤에	MBC 20.4
9	개그 콘서트	KBS2 19.6
10	대조영	KBS1 19.6

(단위:%) (자료제공:TNLS리서치)

순위	제목	장르
1	거룩한 계보	드라마
2	마음이-	드라마
3	일본침몰	액션
4	누가 그녀와 잤을까?	코미디
5	판의 미로-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판타지
6	괴물	드라마
7	쓰우3	스릴러
8	라디오 스타	드라마
9	해바라기	액션
10	가문의 부활	코미디

(자료제공:세네티터)

순위	제목	가수
1	사랑-후에	해성&린
2	잔소리	더너츠
3	흰눈	이루
4	마리아	김아중
5	안녕	KCM
6	기다릴게-	타이퐁
7	가까와 사랑아	서문탁
8	새살	멘테이커즈
9	더티 캐시	빅뱅
10	안 행복해	정나라

(자료제공:빅스뮤직)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전남고시학원

중개사 특강

중개사 특강

전남고시학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광주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월 1일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TEL: (062)262-0101